

성학대 피해 발고지연의 예측 요인과 발고지연이 성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 지 영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알리는 발고 행위를 피해 후 즉각적으로 한 집단과 보름 이상 지연되어 발고한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고지연 여부에 대해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인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고지연과 관련된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 6-13세 성학대 피해 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특성,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행동문제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즉각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간에는 연령, 가족 가해자, 폭력동반여부, 가족형태, 월수입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인은 연령, 가족가해자, 폭력동반여부와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발고지연 집단이 즉각발고 집단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 문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외현화와 총행동문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아동성학대, 발고지연, 예측요인, 행동문제

본 연구는 저자의 2011년 박사학위 논문 작성시 수집했던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음.

■ 투고일: 2015.8.25 ■ 수정일: 2015.11.12 ■ 게재확정일: 2015.11.25

I. 서론

아동 성학대 피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병리의 위험 요인일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대인관계에서의 신뢰감 손상, 자아상의 왜곡 등 여러 심리적 부정응을 야기할 수 있는 외상적 사건이다(권해수, 이재창, 2003; 최지영, 오경자, 2012;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86; Trickett, Noll, Reiffman & Putnam, 2011). 이러한 아동성학대 피해가 얼마나 빨리 발견되는가 하는 점은 학대 받은 아동이 얼마나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재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발고 시기는 진술의 신뢰성이나 법적인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Ahrens, Stansell, & Jennings, 2010; Bicanic, Hehenkamp, van Putte, van Wijk, & de Jongh, 2015).

그러나 기존의 아동기 성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피해 여성들이 사건 자체를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rata, 1998; Lam, 2014; Lamb & Edgar-Smith, 1994). Smith 등(2000)이 3,2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화 조사에서 성적 삽입(강간, 구강성교, 항문 성교)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 중의 28%가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상 연구가 아닌 성학대 피해로 실제 치료나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Farrell(1988) 임상적 연구에서도 의학적 검사 등으로 학대 사실이 밝혀진 아동 중에서 20% 가량의 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발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내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의 내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지영(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41.8%만이 피해 당일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32.4%의 아동들은 6개월 이상이 경과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은 성학대 피해 아동들이 즉각적으로 발고하는 것이 그렇게 전형적인 일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누가 말하지 못하는가? 성학대 피해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체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발고지연과 관련이 깊은 몇몇 요인들을 밝힌 바 있다(Smith et al., 2000; Kogan et al., 2004;

Sauzier et al., 1989; Goodman-Brown et al., 2003). 이를테면 가해자가 가까운 가족인 경우, 그리고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혹은 비밀을 강요받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 인구학적 요인이나 피해 특성과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거의 전무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들 중 소득 수준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나 행동문제와의 상관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 연구(최지영, 오경자, 2012)나 비양친 가정의 아이들이 성학대 피해의 경험 시에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책감이 높았던 연구 결과(김혜영, 2014)를 고려할 때 사회 환경적 요인 또한 발고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추론된다.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의 영향이 발고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탐색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발고 지연이 더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후유증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음은 보다 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Broman-Fulks et al., 2007; Ruggiero et al., 2004). 그러나 발고 지연은 지속 피해 및 가족 내 피해와 높은 상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상호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고 지연의 고유한 영향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방법론적인 제한점을 가졌다. 따라서 상호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발고지연의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유의미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고 지연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고, 발고 지연이 성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성학대 피해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배경 지식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함의 또한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발고(disclosure)란 일반적으로 외상적 경험 및 학대 피해에 대해 밝히는 것을 지칭한다.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발고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Ahrens, Wasco et al., 2001; George, Winfield, & Blazer, 1992). 아동성학대를 겪었던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들은 피해 여성들의 삼분의 일에서 삼분의 이 가까이가 성학대 피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Ahrens, Wasco et al., 2001; Smith et al., 2000). 그렇게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이 더 많았는데, 이는 적절한 보호 및 치료적 개입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 영향 뿐 아니라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면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완화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Broman-Fulks et al., 2007; Ruggiero et al., 2004).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요인이 아동성학대의 발고 지연과 관련되는 지 밝히고자 시도 하였다. 아동의 특성(성, 연령, 인종)과 피해의 종류(학대의 유형, 피해횟수 및 지속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이 발고 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되었는데, 그 결과 일관된 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공존하였다. 비교적 공통적인 결과는 가해자가 아는 관계, 특히 친족관계일 때, 그리고 일회적인 피해가 아니고 지속적인 피해를 겪은 경우에 발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Goodman-Brown et al., 2003; Kogan et al., 2004; Lippert, Cross, Jones, & Walsh, 2009; Sauzier et al., 1989; Smith et al., 2000). 그러나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 되기도 하였다(Lam, 2014; Lippert et al., 2009).

그 외의 아동의 연령이나 피해의 종류나 강도에 따른 발고 지연 역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의도적인 즉각적 발고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Goodman-Brown et al., 2003; Farrell, 1988; Leclerc & Wortley, 2015). 피해에 대한 발고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허용되는 신체적 접촉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지적 발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Goodman-Brown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폭로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요인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고를 지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성학대의 유형 및 강도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삽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협이나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 혹은 비밀유지를 강요받은 경우 자발적인 폭로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되었다(Elliott et al., 1994; Sauzier et al., 1989). 그러나 Arata(1988)의 연구에서는 학대의 정도는 발고 지연에 곡선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주 심한 피해나 강압이 포함된 학대는 가벼운 학대와 함께 발고를 지연시킨 반면에 중간 정도의 피해가 발고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Kogan(2004)에 의하면 강간이나 생명의 위협과 같은 심한 피해를 겪은 경우 더 빨리 폭로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더 심한 피해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으로 명시적인 증상을 남기기 때문에 비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더 빨리 폭로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발고와 관련한 상대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였으나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요인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다. 피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신뢰대상이 없을 경우 즉각적인 발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범죄 피해의 빈도가 유의하게 더 높고, 이들은 부모의 감독과 애착이 낮으며, 성학대 피해 아동 중에서 비양친 가정의 아동들이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가 떨어진다는 조사들이 보고된 바 있다(김혜영, 2014; 전영실, 노성훈, 2011).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고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측에서 바라 본 성폭력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한 Leclerc와 Worthley(2015)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에 놓여있지 않은 것이 빠른 발고와 관련이 있었다.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형태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선행 연구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상으로 발고 지연의 예측요인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지속적인 학대가 주로 발고 지연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한편으로 피해 연령, 피해의 종류 및 강도와 발고 지연 간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담기간이 설립되기 시작한지 불과 10년 남짓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체계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나간 반면에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해 특성과 대처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4). 국내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요인, 성학대 피해의 특성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 받고지연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받고 지연을 예측하는 유의한 요인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성학대 피해 아동 중 받고를 빨리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리 사회적 적응 수준이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문제가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성학대 피해를 입은 후 즉각적으로 받고하지 않은 아동들은 심각한 PTSD 증상과 우울증을 보이며,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roman-Fulks et al., 2007; Ruggiero et al., 2004). Arata(1998)가 860명의 여대생 중 아동기 성학대 경험이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을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한 경우 성장 후의 재경험과 회피반응의 정도가 받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현기능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받고 당시의 받고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받고 후의 부모의 반응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지만 폭로하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는 증상 수준이 경감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Finkelhor, Hotaling, Lewis, & Smith, 1990).

Ahrens 등(2010)은 성학대 피해 여성 103명을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통하여 받고 패턴을 구분하였으며, 받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즉각 받고군이나 지연된 받고군 등에 비하여 우울감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모두에서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물론 받고 대상의 반응이나 받고 후의 처리 과정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받고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 일반적인 외상에 관한 연구에서 외상에 대한 억압이나 회피가 정서적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여러 면역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은 폭넓게 밝혀진 바 있다(Pennebaker, 1995).

아동 성학대와 관련하여서도 받고 지연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됨은 이상의 몇몇 연구들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받고 지연은 지속적 피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가족간 피해 등과 관련 또한 높은 등 성학대 피해 후유증을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들과 높은

상관을 갖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 발고 지연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발고 지연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이를테면 비양친 가정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한 후에도 발고 지연의 영향이 유의한지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최근에 van Delft 등(2015)은 성학대 피해 아동들이 통제집단의 아이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에 ‘비밀이 유의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의 형태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 가정의 형태가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연구대상이 작아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나 성학대 피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발고의 문제를 ‘비밀’이라는 차원으로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들의 발고지연 집단과 즉시발고 집단간에 인구학적 요인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두 집단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가장 유의한 예측변인인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두번째 연구 목적은 발고지연 집단의 아동이 더 많은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성학대 특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서울소재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기관에 방문한 아동들 중 후유증 평가를 위해 정신과 진료와 심리평가를 실시한 6~13세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신지체 아동을 제외한 총 410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 절차

성폭력 피해아동 전담기관에 방문한 아동과 부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인 상담원이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를 면담하여 '초기면담조사 기록지'를 작성하게 된다. '초기면담기록지'는 인구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피해 상황 및 발고 당시의 정보, 그리고 아동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아동의 부모는 기관의 이용 절차와 아동의 자료가 연구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받은 후 '이용 동의서'와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피해 상황과 후유증에 대해 임상적 평가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임상심리전문가가 실시하는 심리평가 중에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후유증과 관련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결과가 심리평가 보고서와 차트에 기록되었으며, 이상의 자료들은 열쇠로 관리되는 차트장에 보관되었다.

3. 측정도구

가. 발고지연

발고 시기는 초기 면담시 피해 일시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린 시점 간의 간격을 조사하였다. 지속피해의 경우에는 처음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성학대 피해 후 보름 이내에 발고한 아동을 즉각적 발고 집단으로 그 이후 발고한 아동을 발고 지연 집단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나. 성학대 특성

성학대 특성은 지속 피해일수록, 삽입이나 폭력이 개입될수록, 그리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Beitchman et al., 1991; Trickett et al., 2001)을 기반으로 4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지속 피해 여부, 두 번째는 가해자와의 관계로 가족 내 피해 여부, 세 번째는 삽입 유무, 네 번째는 폭력 및 협박 여부이다. 세 번째 변인인 삽입은 성교 삽입과 구강성교, 신체부위 및 도구에 의한 삽입이 포함되었다. 각 변인은 유무로 dummy 변인화 하였다.

다. 환경적 요인

아동의 가족 체계 및 사회 경제적 상태 등 심리 사회적 환경 요인들이 발고 지연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가족 형태를 양친가족 형태인지 아닌지와 그 외 월수입을 환경 요인으로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가족 형태는 양친가족 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더미변인화하였고, 월수입은 4점 척도로 연속변인화 하였다.

라. 심리적 적응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아동의 적응 및 문제 행동을 부모가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 & Edelbrock(1983)가 제작한 것을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역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 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1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능력 척도는 내용에 따라 사회활동과 학교에서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들은 내재화 증상에 대한 척도(위축, 신체화, 우울불안)와 외현화 증상에 관한 척도(비행, 공격성)로 구분되어 있다. 표준화 자료에서 소척도의 신뢰도 Cronbach 계수는 .62에서 .86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 총행동문제 원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즉시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간의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특성, 사회 환경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 및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Nagelkerke R^2 을 계산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발고지연 여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을 평가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성학대 특성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발고 지연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VIF)를 계산하였다.

IV.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 통계

연구 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은 9.26세(표준편차 2.08세)였으며 남아가 39명(9.5%)이었다. 성학대 피해 이후 15일 이내 발고한 경우가 199명(48.5%)이었으며 발고까지 15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211명(51.5%)이었다. 발고까지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일 발고한 경우가 166명(40.5%)이었으며, 한 달 내가 21명(5.1%), 6개월 내가 51명(12.4%), 6개월 이상이 56명(13.7%)이었다. 6개월 이상과 1년 이상인 경우도 각각 56명(13.7%), 62명(15.1%)이었다. 성학대 특성을 살펴보면, 일회적인 피해가 아닌 반복피해를 입은 경우가 194명(47.3%),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인 경우가 106명(25.9%), 삽입이 동반된 피해인 경우는 149명(36.3%),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가 142명(34.6%)이었다. 환경적 요인과 관련하여 양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194명(47.3%)이었다. 그리고 가계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0명(15.0%)이었고, 300만원 이상이 114명(27.8%)이었다.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술통계

(N=410)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
성별	남	39	9.5
	여	371	90.5
발고	당일	166	40.5
	보름 내	33	8.0
	한 달 내	21	5.1
	6개월 내	51	12.4
	6개월 이상	56	13.7
	1년 이상	62	15.1
	모름	21	5.1
성학대 특성	강간	61	14.9
	구강성교	57	13.9
	폭력동반	142	34.6
가해자관계	모르는 사람	160	39.0
	가족	71	17.3
	친척	35	8.5
	친구, 선후배	34	8.4
	기타 아는 사람	110	26.8
피해 기간	1회	216	52.7
	10회 이하	73	17.3
	지속적	99	24.1
	기타 모름	22	5.4
가족 형태	양친 가족	264	64.4
	모자 가족	58	14.1
	부자 가족	33	8.0
	조손 가족	15	3.7
	의붓부모 가족	15	3.7
	시설 및 친척 기타	13	3.2
월수입	100만원 이하	60	15.0
	100-200만원	82	20.4
	200-300만원	98	24.4
	300만원 이상	114	28.4
	기타 모름	64	15.6

2. 발고지연 여부에 따른 피해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의 차이

발고지연 여부에 따른 피해 특성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 검정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408)=14.76, p<.001$. 성학대 특성 중에서 삽입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폭력 동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df=1, N=410)=17.39, p<.001$.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발고지연 집단이 유의미하게 가족이나 친지 가해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df=1, N=410)=47.65, p<.001$, 지속피해도 유의하게 높았다, $\chi^2(df=1, N=410)=187.36, p<.001$. 환경적 요인 중에서 가족의 형태는 발고지연 집단이 양친가족 형태가 아닌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chi^2(df=1, N=410)=35.48, p<.001$, 역시 월수입은 유의하게 낮았다, $\chi^2(df=6, N=410)=33.64, p<.001$.

표 2. 발고 지연 여부에 따른 피해 특성 및 사회 환경적 요인 비교

	즉시발고 집단(n=199) 명(백분율)/평균(표준편차)	발고지연 집단(n=211) 명(백분율)/평균(표준편차)	F / χ^2
연령	8.86(1.85)	9.64(2.21)	14.76***
남자	15(7.5)	24(11.4)	1.75
삽입	73(36.7)	76(36.0)	.02
폭력/위협	89(44.7)	53(25.1)	17.39***
가족가해자	21(10.6)	85(40.5)	47.65***
지속피해	25(12.6)	169(80.1)	187.36***
비양친가정	42(21.1)	104(49.3)	35.48***
월수입100만 원 이하	20(10.2)	40(19.5)	33.64***

*** $p<.001$

3. 발고지연의 예측변인

성학대 피해에 대한 발고지연의 예측변인을 확인하고자 발고지연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인구조적 변인,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8%였고, 이 모형은 유의하였다, $\chi^2(df=7, N=410)=228.03, p<.001$. 그러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VIF를 계산하였을 때 2.06으로 일반적인 기준인 2.5는 넘지 않으나 상당히 큰 편이고 상관이 높은 편으로, $\tau=.68, p<.001$, 높은 다중 공선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바, 지속피해를 예측변인에서 제외하였다. 지속피해 여부를 제외한 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9%였으며, 역시 유의하였다, $\chi^2(df=7, N=410)=97.74, p<.001$.

각 하위변인들의 예측력을 살펴보면, 연령의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며, $Wald(1)=8.04, odds\ ratio=1.18, p<.01$, 폭력이 동반된 경우 더 즉시 발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Wald(1)=12.97, odds\ ratio=2.59, p<.001$, 가족 가해자는 발고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Wald(1)=26.80, odds\ ratio=.22, p<.001$. 피해 특성 중 삽입 유무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환경적 요인 중, 가족형태는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며, $Wald(1)=15.47, odds\ ratio=.36, p<.001$, 가족의 월수입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410)				
	B	SE B	Wald	OR (99% CI)
연령(세)	.17	.06	8.04*	1.18(1.05, 1.32)
성별 ¹	-.40	.38	1.08	.67(.31, 1.43)
삽입 ²	-.11	.27	.16	.89(.52, 1.53)
폭력 ³	.95	.26	12.97***	2.59(1.54, 4.53)
가족내 가해 ⁴	-1.51	.08	26.80***	.22(.13, .39)
월수입	-.04	.26	.30	.96(.81, 1.13)
가족형태 ⁵	-1.02	.81	15.47***	.36(.22, .60)

*** $p<.001$, ** $p<.05$, * $p<.01$

더미 변인의 기준 변인 1. 남자, 2. 삽입이 없는 경우, 3. 폭력/위협이 없는 경우, 4. 가족이 아닌 가해자, 5. 양친가족

4. 발고 지연 여부가 성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선,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행동문제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름 이내에 피해 사실을 발고한 즉각발고 집단과 15일 이상 발고가

지연된 발고지연 집단간에 내재화 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총문제 행동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 408)=6.16, p<.0, F(1, 408)=12.26, p<.01, F(1, 408)=13.31, p<.001$.

이어서, 발고지연과 관련될 수 있는 연령과 성학대 특성, 그리고 환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역시 다중공선성의 평가지표인 VIF를 계산하였을 때 2.06으로, 비교적 높은 다중 공선성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지속피해 여부를 제외한 발고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발고지연 여부에 따른 집단간에 내재화 행동의 차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외현화 행동문제와 총문제에서는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 408)=8.24, p<.01, F(1, 408)=7.78, p<.01$.

표 4. 연령, 성학대특성, 환경요인을 통제한 후 발고지연 여부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즉시발고 집단(n=199) 명(백분율)/평균(표준편차)	발고지연 집단(n=211) 명(백분율)/평균(표준편차)	F
내재화 행동문제	12.35(10.09)	15.12(12.31)	2.44
외현화 행동문제	9.34(7.44)	12.61(11.04)	8.24**
총문제 행동	36.11(25.84)	46.76(32.69)	7.78**

** $p<.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 후 비교적 즉각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집단과 발고를 지연한 집단을 구분해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이러한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환경적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발고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고지연을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임상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 연구목적에서는 발고지연이 성학대 피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신고지연과 상호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그 영향이 여전히 유의한지 밝히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신고지연의 고유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앞서, 먼저 주목할 점은 성학대 피해 아동의 높은 비율이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0.5%만이 피해 직후 당일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도 34%에 이르렀다. 이는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Arata, 1988; Goodman-Brown et al., 2003). 국내의 성학대 피해 아동들 역시 피해에 대한 신고지연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은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들, 즉 결국 신고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혀 신고하지 않은 아동의 비율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들에서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상당수가 한 번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 연구들(Ahrens et al., 2001; Smith et al., 2000)을 고려할 때 국내의 성학대 피해 아동들 중의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성학대 피해를 선뜻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성폭력의 의미와 어떻게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때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용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신고의 어려움을 고려한 성폭력 피해 후의 사후대처 방법이 성폭력 예방교육에서부터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지연 집단과 즉각신고 집단간의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피해 특성, 환경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 신고지연 집단 아동의 연령이 더 많았으며, 가족 내에 가해자가 있었던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 지속 피해인 경우 또한 많았다. 피해 특성 중 폭력 및 위협이 동반된 피해는 즉시신고 집단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Goodman-Brown 등(2003)의 제안대로 연령이 많아지면서 두려움이 커져서 신고를 지연시킬 수도 있겠으나 높은 연령은 지속피해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폭력 및 협박 동반과 관련하여서는 신체적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라도

더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Kogan(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양친가족 형태의 가족 환경의 아동은 보다 즉각적인 발고를 하는 반면에, 조부모 가족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혹은 새로 결합된 가족형태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발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발고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발고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학대 특성들과도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도 유의한 예측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여러 변인들 중에서 즉각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의 구분하게 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폭력동반여부, 가족내 가해, 가족 형태는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앞서 집단차이 비교에서는 월수입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함께 고려할 경우에는 유의한 예측변인은 아니었다. 연령과 성학대 특성이 발고지연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폭넓게 밝혀져 왔으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몇몇 선행 연구들이 열악한 환경적 요인이 적절치 못한 대처나 더 심각한 후유증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김혜영, 2014; Leclerc & Worhley, 2015) 본 연구는 가족형태가 발고지연 여부의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고 대상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또래나 선생님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경우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2010)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부재는 발고지연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발고 대상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 형성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관여할 수 있으나, 우선 이야기를 할 대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성폭력 보호 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성폭력 피해 시의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믿고 접근할 수 있는 도움의 대상이 아동의 인근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동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아동성학대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학대나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 등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외상적 경험이나 부정적 사건들이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여 아동들이 겪게 되는 후유증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성학대뿐 아니라 아동보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아동들이 언제든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밝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가정 밖 지역사회나 학교 등의 가까운 거리 내에 상존하는 복지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발고지연을 막는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취약한 환경에 놓은 아동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부방’이나 ‘아동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아동 성학대 피해의 반복을 막고, 후유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동성폭력 피해의 예방은 성폭력 전담기관의 확대만이 아닌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체계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발고지연 여부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발고지연 집단이 내재화와 외현화, 그리고 충문제 행동에서 모두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어 발고지연과 상호관련된 다른 요인들, 연령,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화 행동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현화와 충문제 행동은 여전히 유의하였다. 선행 연구의 경우, 발고지연 집단이 외상후 증상이나 우울, 불안 등을 비롯한 내재화 문제에서도 유의하게 더 심각한 어려움을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Broman-Fulks et al., 2007; Ruggiero et al., 2004). 반면에 성학대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다른 상호 관련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발고지연의 고유의 부정적 영향이 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 있음을 제안한다고 하겠다.

Greis 등(2000) 역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고한 아동들이 의미 있게 적은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인 것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부인과 억압과 같은 원시적인 방어기제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외상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외상후증상 및 우울감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Pennebaker, 1995)고 밝혀진 점을 고려한다면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아동들이 공격성의 증가나 비행 등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학대 피해 아동들의 후유증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외상후 증상이 아닌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며, 치료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분노와 소외감과 같은 감정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 결과, 성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시에 발고지연 여부는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임을 제안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한계는 궁극적으로 받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성학대 피해를 알리지 않은 아동들을 예측하는 변인이나 특성을 밝히지는 못하였다. 두 번째 받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자발성 여부와 받고 대상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즉각받고의 경우라도 자발적이었는지 우연히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른지 혹은 자발성 여부와 관련 없이 지연여부가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종합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받고지연 집단을 대상으로 받고지연 후 겪게 되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제적인 이해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즉각받고 집단과 받고지연 집단의 기준을 선행 연구 (Ahrens et al., 2010)에 따라 15일로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받고지연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으며, 특히 환경적 요인 중 가족형태가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밝힘으로써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보호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의의가 있었다. 더불어 받고지연의 고유한 부정적 영향이 주로 외현화 행동문제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유증과 치료 과정에 임상적 시사점 또한 주었다.

최지영은 연세대학교에서 임상심리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학실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정신병리 등이며, 현재 이와 관련된 임상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E-mail: haiminju@hanmail.net)

참고문헌

- 권해수, 이재창.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전략과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1(1), pp.22-31.
- 김혜영. (2014). 아동의 성학대 인식과 대처능력에 관한 연구. 사회구성주의와 미셸푸코의 권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61-462.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1). 2010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서울: 연세의료원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4).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10주년 사업보고서. 서울: 연세의료원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 지원의 새로운 모색.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전영실, 노성훈. (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최지영, 오경자. (2012). 중복대인관계외상이 성폭력 피해 아동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내·외현화 행동문제,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pp.641-658.
- Ahrens, C. E., Stansell, J., & Jennings, A. (2010). To tell or not to tell: The impact of disclosure on sexual assault survivors' recovery. *Violence and Victims*, 25(5), pp.631-648.
- Arata, C. M. (1998). To tell or not to tell: Current functioning of child sexual abuse survivors who disclosed their 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3, pp.63-71.
- Beitchman JH., Zucker KJ., Hood JE., daCosta GA., & Akman D. (1991) A review of the short-term effect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15, pp.537-556.
- Bicanic, I. A. E., Hehenkamp, L. M., van de Putte, E. M., van Wijk, A. J., & de Jongh, A. (2015).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of rape in femal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6, pp.1-9.

- Broman-Fulks, J. J., Ruggiero, K. J., Hanson, R. F., Smith, D. W., Resnick, H. S., & Kilpatrick, D. G., et al. (2007). Sexual assault disclosure in relation to adolescent mental health: resul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2), pp.260-266.
- Elliott, D. M., & Briere, J. (1994). Forensic sexual abuse evaluations of older children: Disclosure and symptomatolog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12, pp.261-277.
- Farrell, L. T. (1988). Factor that affect a victim's self-disclosure in father-daughter incest. *Child Welfare*, 67, pp.462-468.
- Finkelhor D. m., Hotaling, G., Lewis, I., & Smith C. (1990). Sexual abuse in a national survey of adults men and women: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Child Abuse & Neglect*, 14, pp.14-28.
- George, L. K., Winfield, I., & Blazer, D. G. (1992). Sociocultural factors in sexual assault: comparison of two representative samples of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48(1), pp.105-125.
- Goodman-Brown T.B., Edelstein, R. S., Goodman G.S., Jones D.P.H., & Gordon D. S. (2003). Why children tell: a model of children's disclosure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7, pp.525-540.
- Gries L. T., Goh D. S., Andrews M. B., Gilbert J., Praver F., & Stelzer D. N. (2000). Positive reaction to disclosure and recovery from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9(1), pp.29-52.
- Kendall-Tackett KA., Williams LM.,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ntin*, 113(1), pp.164-180.
- Kogan S. M. (2004). Disclosing unwanted sexual experience: results from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 women, *Child Abuse & Neglect*, 28, pp.147-165.
- Lam, K.Y.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disclosure of sexual abuse experiences in Hong Kong.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3(7), pp.768-791.
- Lamb, S., & Edgar-Smith, S. (1994). Aspects of disclosure: Mediators of outcome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pp.307-326.

- Leclerc, B., & Wortley, R. (2015). Predictors of victim disclosure in child sexual abuse: Additional evidence from a sample of incarcerated adult sex offenders. *Child Abuse & Neglect*, 43, pp.104-111.
- Lippert, T., Cross, T. P., Jones, L., & Walsh, W. (2009). Telling interviews about sexual abuse: predictors of child disclosure at forensic interviews. *Child Maltreatment*, 14, pp.100-113.
- Pennebaker, J. W. (1995).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ggiero, K. J., Smith, D. W., Hanson, R. F., Resnick, H. S., Saunders, B. E., & Kilpatrick, D.G., et al. (2004). Is disclosure of childhood rape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outcome? Results from the National Women's Study. *Child Maltreatment*, 9(1), pp.62-77.
- Sauzier, M. (1989).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For better or worse.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2, pp.455-469.
- Smith, D., Letourneau, E. J., Saunders, B. E., Kilpatrick, D. G., Resnick, H. S., & Best, C. L. (2014). Delay in disclosure of childhood rape: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Child Abuse & Neglect*, 24, pp.273-287.
- Trickett, P. K., Noll, J. G., Reiffman, A., & Putnam, F. W. (2001). Variants of intrafamilial sexual abuse experience: Implication for long term. *Journal of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pp.1001-1019.
- Van Delft, I., Finkenauer, G., De Schipper, C. D., Lamers-Winkelmann, F., & Visser, M. M. (2015). The mediating role of secrecy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sexually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46, pp.27-36.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and Effects of Delayed Disclosure on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exually Abused Children

Choi, Ji Young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children who immediately disclose from children whose disclosure was delayed in a samp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ces in behavioral problems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410 sexually abused children (age 6-13), we assess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buse characteristics (type of abuse, duration of abus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family income), and behavior problems. Logist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g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family struc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layed disclosure group manifested higher externalizing behavior and total problem behaviors when demographic variables,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considered toge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exual Abuse, Delayed Disclosure, Predictor, Behavior Problem